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2014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인도 작가 므리날리니 무케르지의 작품 '수목생성'을 관람하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광주비엔날레에는 모두 1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예년보다 다양한 작품 만나니 좋다”

### 2014 광주비엔날레 풍경

개막 후 첫 주말·추석 겹쳐  
10일까지 1만2000명 방문  
미성숙한 관람문화 ‘옥에 티’  
일부 작품 접근 금지줄 제작

“난해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색다른 작품들이 전시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어서 즐거웠습니다.”

2014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 개막 이후 첫 주말과 추석 연휴를 맞아 10일까지 모두 1만2000여 명의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38개국 작가들의 작품 413점을 천천히 둘러본 뒤, 전시장 야외 사이트인 팔각정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산책하면서 연휴를 보냈다. 지난 7~9월에는 한복을 입고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개막과 동시에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각국의 현대 미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아내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전경중(65)씨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 보는 내내 즐거웠다”며 “특히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작품들을 모아 놓은 중국 작가의 ‘쓸모없는’을 보면서 많

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흥미盎 미각디자인학과 최수훈(27)씨는 “집이라는 소재를 불태운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었는데, 불타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을 작품들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개막 이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은 1전시실에 있는 아르헨티나 작가 에두아르도 바수알도의 ‘섬’이다. 2~3명씩 짹을 지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작품 앞에는 20~3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이 작품은 불에 타버린 집의 외형을 만든 뒤 작가가 실제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화재현장에서 가져온 잔해들을 전시한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걸모습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부로 들어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4전시실에 있는 로만 온다의 시민 참여형 작품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얀 벽면으로 된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면 토순트가 다가와 “실례지만

혹시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고, 시민들이 답하게 되면 하얀 벽면에 그 사람의 이름의 이름과 방문 시간이 방명록처럼 기록되게 된다.

이 밖에도 카르슈텐 훨러의 ‘일곱 개의 미닫이 문’과 우르스 피셔의 ‘38 E. 1st ST’, 1전시실의 애드워드 킹홀즈와 낸시 레인 킹홀즈의 ‘오지만디아스 페레이드’ 등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문 작품이다.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시민들은 작품을 만지거나 작품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아찔한 경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슨트들도 “만지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를 외치기 바빴다. 급기야는 광주비엔날레 측이 지난 9일 주요 작품에 접근 금지줄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일부 작품은 제대로 된 관람도 힘들고, 시민들의 동선도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개막 몇 일 만인 이날 4전시실에 있는 김성환 작가의 영상작품이 고장나 작동을 멈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도슨트와 함께 하면 재미 두배 스마트폰 전시해설도

현대미술이 어렵다면 도슨트와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자.

전시 기간 매일 모두 11차례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소요 시간은 1시간10분에서 1시간30분정도로,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시관 입

구에 있는 도슨트 인포메이션 앞으로 선착순으로 모이면 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모바일 홈페이지(m.gwangjubiennale.org)에 접속해 전시별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 들으면 된다.

또 11일부터는 전시장 입구에 QR코드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더욱 손쉽게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62-608-439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환우·가족들 힘내세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내일 조선대 병원서



바리톤 김제선

매달 한 차례 모여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불러온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숙)는 해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대 병원에서 행사를 갖는다. 12일 오후 7시 조선대 병원로비.

이번 무대는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가곡과 동요로 레퍼토리를 썼다. ‘나뭇잎배’, ‘노을’, ‘그 집 앞’, ‘금강에 살았리웠다’, ‘얼굴’, ‘보리밭’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은 우리가곡부르기 회원들로 구성된 ‘우가사 중창단’이 ‘그리운 마음’과 ‘나 그대 사랑하리라’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테너 박현 소프라노 김희숙씨가 오페라 ‘춘향전’ 중에서 ‘그리워 그리워’를 부르며 서구어린이 합창단이 찬조 춤연 해 ‘비비디바비디부’, ‘별’을 들려준다. 다 함께 배우는 노래는 ‘나 그대 사랑하리라’다.

그밖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이 ‘ViVa! 비바?’를 연주하며 초청 음악인으로 바리톤 김제선과 소프라노 윤은주씨가 춤연,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오페라 ‘잔니 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선사한다. http://cafe.daum.net/gjkr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정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정지은(사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음악학과와 독일 국립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씨는 뉘른베르크, 바이에른 등에서 수자례 조정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를 가졌으며 귀국후 2015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빛고을음악회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과 12월에는 사랑과 나눔 양상불이 주관하는 연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소나타 6번 F장조’, 스크라빈의 ‘소나타 편지’, 슈베르트의 ‘소나타 D단조 20번’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다문화 전통음악 만난다

광주평화방송 무료공연 ... 13일 광주문화예회관

광주평화방송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강당에서 다문화 전통음악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2014 광주·전남 다문화 순회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 지역 종교인평화회의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평화방송이 주관한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등 12개국 12명의 출연연자들은 국악양상별 시니위가 특별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다. 문의 062-231-77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계림동 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uojang.co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민국 특허청  
국립현대미술관  
트라이슈미  
우수건축자재  
주전제품  
단열복합시스템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 트라이슈미® 단열복합시스템 20년은 가능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운터공  
2. 단열베이스카운터  
3. 트라이슈미 텁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 아트패션시티®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종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하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10-0497254호, 특허 제10-1220168호

베란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